

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18년 12월 5일 기사입니다.

“강원 우수기업 세계시장 진출”



도내 유일한 국제교류분야 경제단체인 강원경제인국제교류협회(회장:고광만·이하 강국회)가 내년 상반기 중국 장쑤성 옌청시 빈하이현으로 교류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강국회는 4일 춘천시내 모 음식점에서 2018년 제4회 정기회를 열고 올해 사업 결산과 내년도 신규 사업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도를 방문한 빈하이현 경제교류단(단장:첸위화 빈하이현위원회 서기)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답방 형태로 현지를 방문해 식품제조업 체간 기술 제휴, 관광산업 교류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빈하이현은 항구도시로 인구는 120만명에 달한다.

고광만(동양아이텍 대표) 회장은 “내수시장 침체가 극심한데 내년에는 경제개발 입지 조건이 뛰어난 빈하이현과의 교류 협력을 구체화시켜 새로운 기회를 찾자”고 했다. 이 회중 강원일보사장은 “내년 강국회 회원사들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언론 사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올해 추진한 회원사 탐방을 이어가고, 강사 초청특강, 포럼 개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고광만 회장을 비롯, 박종인 광산 대표, 오덕근 서울F&B 대표, 이호성 산돌식품 대표, 이원복 MS마트 대표, 이미옥 해송KNS 대표, 김영숙 청명산업 대표, 박용성 태백건설산업 대표, 김숙영 태영산업개발 대표, 이동희 로스팅컴퍼니로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신입회원으로 김동욱 동해다이하퍼 대표, 데이비드 차 이디오피아벳 대표를 영입했다.

백진용기자